

## 스페인어 권 문학과 영미문학의 상호 영향과 수용에 대한 비교문학적 접근의 의의\*

김 춘 진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 1. 비교문학의 의의

어느 시대이든 서로 다른 문화들은 상호 접촉과 교류를 통해 지방적인 것에서 보다 큰 문화 영역으로 확장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요즈음만큼 지방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 사이에 역동적 긴장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도 드물 것이다.<sup>1)</sup> 한편으로 문화의 글로벌화 가운데 지방적인 것이 멸실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기회로 가치를 글로벌화 하는 지방문화들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정보화 시대의 테크놀로지가 자리잡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보화 사회는 인류의 생활과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혁명적 변동을 초

---

\* 이 연구는 학술진흥재단의 1997학년도 학제간연구지원사업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1) 구온Claudio Guillen은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작가란 구체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 는 지방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 사이에서 긴장을 느끼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The Challenge of Comparative Literature*, Harvard Univ. Press, 1993, 12.) 요즈음은 비평가 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문학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 전반을 통해 그러한 긴장을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 지방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 사이의 긴장은 작가와 현대인들에게 역사 변동의 주요한 패러다임으로 여겨질 지경이다.

래하고 있다. 다양한 지역의 경제권들이 하나의 단일 시장을 향해 접근해 가는가 하면, 그와 비례해서 국가의 주권이 약화되고 민족의 이념도 그만큼 변화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국지적으로 고유한 전통을 지켜왔던 제각각의 민족 문화들은 갈등과 융합의 과정을 거듭하면서 거리를 좁혀가고 있다.

문학이 글로벌화에서 예외일 수 없음은 물론이다. 지방적 가치가 중시되었던 민족문화 시대는 이미 고고학적 유물이 되어가고 있다. 사실, 비교문학은 각 민족 문학이 고유한 가치를 보유하고 독립적 단위로 유지되는 동안 필요하고 유의미했던 것이다. 그래서 올드리지 A. Owen Aldridge는 비교문학 연구는 근사성, 전통 혹은 영향관계의 파악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서로 관계가 없는 작품들 사이의 스타일, 구조, 법 또는 생각에서는 근사성을 찾고, 공통의 역사적, 연대기적 또는 형식적 유대를 지닌 작품들 사이에서는 전통과 영향관계를 밝히는 것이라고 했다.<sup>2)</sup> 그러나 주제나 형식의 근사성, 전통성의 공유 또는 상호 영향관계를 비교한 미시적 안목에서만 비교문학의 의미를 찾는 것은 민족 문학 시대의 패러다임이다.<sup>3)</sup> 이제 민족 문학이 그 나라

2) 그리하여 생각의 근사성에 관한 비교대상의 예는 우유부단한 인물 연구인 러시아 소설 『오블로모프』와 셰익스피어의 희곡 『햄릿』 사이에서 찾을 수 있고, 전통의 동질성에 관한 예로는 일안칭 형식으로 감정의 자유분방한 표현을 찾은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과 루소의 소설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탈리아 만조니 Manzoni의 역사소설 『약혼자들 / *promessi sposi*』에서는 스코트 Walter Scott 소설 영향을 비교할 수 있는 예라고 지적했다. (*Comparative Literature: Matter Method*,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Urbana/Chicago/London, 1969, p.3)

3) 사실 근대국가의 개념은 16세기 근대사회의 이데올로기를 통해 형성되었다. 왕조의 세습, 군사적 정복, 경제력의 향상, 중앙집권화 등 푸코의 말을 빌리면 물질 축적(자본의 축적)과 더불어 인적 축적(정치적 축적)이 이루어지면서 근대국가의 모양이 갖추어져가기 시작했다. 서구 사회에서 민족의 개념이 보다 확고하게 자리잡은 것은 19세기 들어서였으며 정규군대, 관료주의 등 근대적 사회조직이 민족 단위로 중앙집권화한 주권국가 개념을 만들어내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주권국가들 사이의 세력균형에 의해 유지되어온 국제사회의 정치적 질서는 위기를 맞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민족 문학이 그 나라 역사의 반영이라는 폐쇄적 경계 안에서 해석되었던 과거의 민족 문학들은 이제 세계문화라는 거시적 해석의 틀 안에서 재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역사의 반영이라는 식으로 폐쇄적 안목에서 해석하는 시대는 지나갔으며, 개개의 민족 문학들은 세계 문화라는 거시적 해석의 틀 안에서 통합되고 재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예를 들어 셰익스피어는 엘리자베스 시대의 영국문학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로망스 장르의 완만하지만 축적적인 발전이 동방고전에서 도입된 극적 능력의 충격을 받아 새로운 양식으로 탄생한 것이라는 식으로 거시문화적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sup>4)</sup>

일찍이 커다란 논란의 파장을 일으킨 르네 웰렉 Rene Wellek의 1958년 논문 “비교문학의 위기 The crisis of comparative literature”은 지나치게 기고 사실지향적인 전통적 비교문학 방법론, 즉 자기 문학과 타문학 사이의 인과적 영향관계에 치중한 프랑스 비교문학 비평을 비판하고 일반문학과 비교문학 사이의 구별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비교문학은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치와 질에 대한 관심을 의미하며, 그것은 텍스트의 역사성을 포함하고 그러한 이해를 위해 비평사를 요구하며, 궁극적으로 그것은 보편문학사와 연구의 이상적 간격을 잇는 구체적 퍼스펙티브를 의미한다. 분명 비교문학은 민족적 편견과 지방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서로 다른 민족적 전통의 존재나 생명력을 무시하거나 최소화 시켜서는 안된다. 우리는 왜곡되고 불필요한 선택을 경계해야 한다. 민족문학과 보편 문학, 문학사와 비평을 다같이 필요로 하며, 비교문학만을 통해서만 가능한 폭넓은 시각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sup>5)</sup>

4) Moulton, Richard G., “World Literature and Its Place in General culture”, *Ye Comparative and General Literature*, 39(1990-91), Indiana University, 21.

5) “The name and Nature of Comparative Literature”, *Comparatists at Work*, E Stephen G. Nichols Jr., and Richard B. Vowels, blaisdell Publishing Co., Mass 1968, 22-23. 르네 웰렉은 예술활동과 심미적 행위는 인간의 다른 행위들과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곳곳에서 강조했다. 이미 70년대 초에 실천적 도덕적 행위나 논리적 인식론적 형이상학적 검증 목적 없이 오직 총체적 형식을 채우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무목적의 목적을 미적 목적으로 시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이나, 진리와 선과 달리 미적 가치를 유용성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무사심의 즐거움’으로 구별한 칸트 전통의 붕괴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었다. 희랍인들이 알고 있었고 칸트가 정교하게 전개시킨 진, 선, 미 그리고 유용성의 구별과 인간의 다른 행위들과 구별되는 예술과 미학의 독립적 개념이 시험받고 있다고 말이다(“Comparativ

그런 의미에서 비교문학과 문학 사이의 경계는 모호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교문학은 대학 강단에서도 각 지역 문학과 구별되는 독립된 학문 분야로 존속하고 있다. 물론 그것은 항구적으로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지역문학단위의 비교문학단위로의 통합과정에서 보여지는 잠정적 또는 과도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말이다. 어쩌면 비교문학은 문학단위가 하나의 언어 또는 한 연구자의능력 범위 내로 좁혀질 때까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 문학들 사이에 기생한다는 의미로서의 불구적 개념인 비교문학은 불구적인 채로 내내 존재할 수밖에 없을지 모른다. 그런 경우 비교문학의 영역 확장은 왕키 Frank, J. Warnke가 바라던 대로 문학의 정전들에 대한 재검토와 오류의 시정은 물론 소외되고 무시되어왔던 민족들의 주요한 작품들에 대한 인식의 확대를 가능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sup>6)</sup> 그러므로 거시문화적 해석으로 민족 문학의 고유성이 무시되거나 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당장 설득력을 갖게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오히려 오늘날 비교문학 연구가 문화, 언어, 민족, 역사, 그리고 정체성 등이 위기에 빠진 격변의 시대의 문화적 대응 방식이라는 주장에 더 귀기울여 볼 일이다.

그렇더라도 역설적으로 민족 문학에 대한 인식의 확대가 곧 세계문학으로의 발전적 통합을 향해 나가는 길이라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비교문학 연구는 정체성을 위협받는 민족문학의 이해를 심화시키는 동시에 문학의 단일 정체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오늘날 비교문학의 진정한 의미는 이미 낭만주의 시대에 괴테가 말한 ‘세계문학 Weltliteratur’을 확장하는 것은 물론 그와 동시에 민족 문학의 지방성을

---

Literature Today”, *Discriminations*,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1970, 4  
 이차대전 이후 미국문학의 비평에 있어서도 사회주의적 비평, 심리주의적 비평, 신화적 비평, 특히 실존주의의 철학적 배경에 의존한 비평경향들을 비판하면서 문학 비평은 여타 학문과 달리 인간의 심미적 행위의 해석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Philosophy and Postwar Criticism,” *Comparative Literature: Matter and Method*  
 6) “The Comparatist’s Canon: Some Observations”, *The Comparative Perspective in Literature. Approaches to the Theory and Practice*, (ed. by Clayton Koelb and Noakes), Cornell Univ. Press, Ithaca and London, 1988, 55.

복하고 세계적 이해를 도모하는 방향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 2. 스페인 문학과 영국 문학

거슬러 올라가면 스페인 문학도 영국 문학도 한 뿌리에서 만나게 된다. 스페인 문학이 로마 지배하의 라틴어를 모태로, 게르만 민족 이동이 일어나고 로마 제국이 붕괴된 이후 로마 영토의 지방화가 가속화되면서 11세기를 전후한 중세에 태동하였다면, 영국 문학은 라틴어 계열인 불어와 이탈리아어에 게르만어가 뒤섞여 창조적 근대어로 발효되면서 시작되었다. 두 문학은 유럽 역사 가운데 부침의 과정을 달리하면서 때로는 서로 수용하고 때로는 영향을 미치면서 각기 고유한 문학의 토양을 일구어냈다.

스페인 문학의 문화적 정체성은 그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적 문화적 이유들로 해서 서구 문학 전통과의 관계에서 늘 문제시되고 논란거리가 되어왔다. 변경 유럽에 위치한 지정학적 상황 때문에 역사적으로 스페인 문학은 유럽 중심 문예사조를 주로 수용하는 쪽이었다. 중심문화가 주변문화의 영향 아래 놓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린 Otis H. Green은 중세이래 현대에 이르기까지 기사도 정신이나 기독교의 박애 정신 등 서구의 문학전통이 스페인 문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면서 스페인 문학은 일관되게 서구 전통의 맥락 속에서 전개되어 왔음을 확인했다.<sup>7)</sup> 한걸음 더 나아가 르네상스기 이탈리아 문학의 영향과 계몽주의 이래 프랑스 문학의 영향은 스페인 문학의 전장에 걸쳐 두루 얘기되어야 할 광범위한 것이다. 그에 비하면 영국문학과 독일 문학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기는 했지만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번역한 계몽주의 극작가 모라틴 L. F. Moratín이나 19세기 스페인 사실주의의 대표적 소설가 갈도스 Benito Pérez Galdós에서처럼 영문학의 영향은 도처에서 확인할

7) *Spain and the Western Tradition: The Castilian Mind in Literature from El Calderón*, Madis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63, p. 328. 이에 대해 Elias L. Rivers는 그린의 지나치게 스페인 문학을 일반화 단순화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MLN, 80(1905), 235-244).

수 있다. 갈도스의 경우 셰익스피어 희곡 인물들에 관심을 갖고 소재를 원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플롯이나 극 구성에 대한 논평이 없었던 것은 특징적이다.<sup>8)</sup> 또한 스페인 낭만주의에 끼친 바이런의 영향은 스페인의 피를 물려받은 위고의 영향에 못지 않았다.

반면에 다른 유럽 문화에 비해 지방적 특성과 토속적 고유성이 두드러진 스페인 문학이 어떻게 유럽 문학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검토하는 것은 유럽 문학이 스페인 문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보편화된 주제라는 점에서 흥미로운 작업일 것이다. 스페인 문학이 유럽 문학에 기여한 것도 한 시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무슬림 지배하의 스페인은 유태인과 아랍인은 물론 아랍 치하의 모자레브 기독교인들의 지적 활동을 유럽 사회에 전달했다. 『칼릴라와 디나*Calila e dimna*』, 『신다바드*Sindabad*』, 『훈 속담*Proverbios morales*』 등은 아랍의 지혜들을 유럽 문화에 전수시키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이처럼 동방문화와 유럽 문화 사이에서 독특한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은 유럽의 변방에 위치해 아프리카와 유럽을 잇는 경계선 상에 놓여있었던 지정학적 상황에서 기인하는 바 크다. 스페인 문학이 지니는 독특한 양식과 가치도 그러한 지정학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임은 물론이다.

역사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아랍의 지배를 받았는가 하면 유럽 근대사의 낙오자가 된 스페인도 유럽의 중심에 있었던 적이 있었다. 그 역사적 도약의 시대는 콜롬버스의 신대륙 발견에서 시작되었다. 피지배의 역사를 극복하고 새로운 식민제국 시대를 향한 희망과 변화된 세계관의 전주는 스페인 최초의 대화체 소설 『셀레스띠나*La Celestina*』(1499)에 극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근대적 개인의 인간 심리와 사회의 갈등을 보여준 『셀레스띠나』는 이탈리아 불어는 물론 영어로 두 차례 번역되었으며 특히 매브James Mabbe의 번역본 출간은 많은 영국인들이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셰익스피어도 『로미오와 줄리엣』을 쓰기 전에 『셀레스띠나』의 영문 번역판에 접했을 것으로 미루어

8) "Allusions to Shakespeare in Galdós", HR, 39(1971), 254

집작할 수 있게 해준다.<sup>9)</sup>

스페인 문학의 중세와 르네상스를 가르는 전환점에 서있던 『셀레스티나』 이후 16-17세기 스페인 고전문학은 유럽 문학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다. 스페인의 정치력과 군사력이 강화되고 스페인인들의 인적 물적 이동과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 문화적 영향력도 당연히 증가되었다. 이 무렵 스페인은 대서양 너머 신대륙 경영에 나섰는가 하면 무적함대를 앞세워 회교 세력을 몰리치고 지중해를 제패하였으며, 신성로마제국을 겸한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실은 화란, 이탈리아 등 유럽 대륙의 주요한 부분을 지배하고 있었다. 픽션이 가미된 산문을 창조해 소설 발생에 기여했던 게바라 Fray Antonio de Geuvara의 『군주의 시계 *Reloj de Principes*』,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Libro de Marcus Aurelius*』 등은 유럽 전역에 번역되어 인기를 누리며 광범위한 반향을 일으켰다. 게바라의 영향은 베이컨, 버클리 경 Lord Burghly, 월터 랠라이 경 Sir Walter Raleigh에게서 흔적을 찾을 수 있다.<sup>10)</sup> 1605년 『돈키호테』로 패로디되기까지 16세기 전체를 풍미했던 스페인의 대표적 기사소설 『골의 아마디스 *Amadís de Gaula*』는 세습왕통의 정통성이 문제시되었던 헨리 7세와 헨리 8세의 정치적 의도 때문에 영국에 널리 유포되었지만 이미 기사소설 유행이 15세기 중엽에 끝났던 영국에 그다지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몬테마요르 Jorge Montemayor의 목가소설 『다이아나 *Los siete Libros de Diana*』는 바르톨로뮤 영 Bartolomew Young에 의해 1583년 영어로 번역되었으며 그 흔적은 셰익스피어의 『베로나의 두 신사 *Two Gentlemen of Verona*』에서도 발견된다.<sup>11)</sup>

9) Hume, Martin, *Spanish Influence on English Literature*, Huskell House, New 1964, 126.

10) 같은 책, 61. 흥미로운 것은 흄이 필립2세의 시대에 영국으로 정치적 망명을 했던 페레스 Antonio Pérez가 스페인에 대한 흑색 전설을 유포시킨 『이야기들 *Relations*』이 게바라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목한 사실이다. 스페인 문학의 영향력을 사상이나 형식의 문제보다 독특하고 유별난 소재에서 찾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11) Albert R. Frey처럼 셰익스피어의 희곡에 『다이아나』가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견해도 있다. (*William Shakespeare and Alleged Spanish Prototypes*(1886), AMS Press, New York, 1971, 22-27.

세르반테스의 소설로 가기 전 스페인 산문이 낳은 이정표적 작품은 『라사로 출세기 *La Vida de Lazarillo de Tormes: y de sus fortunas y adversidades*』 (1554)이다. 가난한 한 소년의 성장 과정을 통해 스페인 사회의 위선과 부조리를 고발한 최초의 소설적 실험작이었던 익명의 이 작품은 1568년과 1576년 각각 *The Marvelous Dedes and Life of Lazaro de Tormes*와 *The Pleasant History of lazarillo de Tormes, a Spaniard*, 1586년에는 David Rowland of Anglesey의 판본이 출간되었다. 멀로리 Malory의 『아더왕의 죽음 *Morte d'Arthur*』와 같은 아더왕 로망스나 『켄터베리 이야기』 같은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유래한 이야기 형식들이 주류를 이루었던 판에 전적으로 희극적인 소재에 풍부한 재담들이 읽을 만한 짜임새로 엮어진 『라사로 출세기』의 등장은 사뭇 새로운 이야기 체험이었다. 스페인 피카레스크 소설은 『라사로 출세기』 뿐만 아니라, 『구스만 알파라체의 삶 *Vida del Pícaro de Guzmán de Alfarache*』 (1599)이 매브 James Mabbe ‘Don-Diego-Puede-Ser’에 의해 *The Rogue, or the Life of the Life of Guzman de Alfarache*(1622)로 번역되었으며, 여성 피카로를 주인공으로 한 『후스띠나 *La Pícaro Justina*(1605)가 스티븐스 Captain John Stevens가 번역한 *The Spanish Libertines*(1707)의 한 부분으로 소개되었다. 스페인 피카레스크 소설은 내쉬 Nash의 Jack Wilton(1594)에서 데포우 D. Defoe의 『몰 플랜더즈 *Moll Flanders*』에 이르기까지 영국 피카레스크 소설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블라스 Gil Bas는 스페인 소설 『마르코스 오르레곤의 생애 *La vida del escudero Marcos de Obregón*』에 직접적 영감을 받았다. 스위프트의 *The Devil on Two Sticks*, 르사쥐 Le Sage의 *Le Diable Boiteux* 등에서 보여지듯 광범위한 반향을 일으킨 게바라 Luis Vélez de Geuvara의 『절름발이 귀신 *Diablo Cojuelo*』도 주목받은 피카레스크 소설이다. 게베도 Francisco de Quevedo의 『사기꾼 *La vida del Buscón*』도 1657년 *The Life and Adventures of Buscon the witty Spaniard, put into English by a Life of Spanish Sharper*로 번역되었으며 스위프트의 새타이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스페인 피카레스크 소설은 영국과 프랑스는 물론 독일에까지 전해져 피카로 인물



전형을 유럽 문학에 보편화시켰다. 그리멜스하우젠 Grimmelshausen의 「짐플리치시무스의 모험 *Der Abenteuerliche Simplicissimus Teutsch*」은 대표적인 작품이다.

무엇보다 유럽 전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스페인 고전 중의 고전은 『돈끼호테』였다. 셸튼 Shelton의 영어 번역본은 1612년에 나왔으며 플레처 Fletcher는 『돈끼호테』에서 암시를 얻어 *Knight of the Burning Pestle*를 썼다. 드레이크 Drake는 *Shakespeare and his Times*에서 *King Henry IV*와 『돈끼호테』가 닮은 근사 부분에 대해 언급하였다.<sup>12)</sup> 당시 영국 작품들에서 『돈끼호테』의 인물들이 무수히 언급되고 재연출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훗날 『돈끼호테』가 이미 기사소설 장르가 수명을 다했던 영국에서 크게 인기를 끌었던 이유를 그 유머 속에 가장 원초적이고 항구적인 휴머니즘의 감정을 일으켰기 때문이며 또한 아랍과 유대 전통에서 전수된 경귀와 지혜가 담겨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sup>13)</sup> 그리하여 피카레스크 소설에서 『돈끼호테』까지 스페인 소설은 영국 문학에 두드러진 족적을 남겼으며 그 전통은 필딩 Fielding의 *Joseph Andrews*, 스몰리트 T. Smollet의 *Roderick Random*, 스텐 L. Sterne의 *Tristram Sandy*는 물론 디킨스 C. Dickens와 트웨인 Mark Twain에게까지 이어진다. 세르반테스의 모험소설들은 플레처와 미들턴 Middleton, 라울리 Rowley 등에 의해 각색되기도 했다.<sup>14)</sup>

흔들리는 카톨릭 전통 가운데 허위보다 진실을,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을, 타락보다는 덕성 회복을 위해 개혁의 가치를 내걸었던 스페인 신비주의가 지나치게 호사스럽고 외양에 치중하던 기독교의 전면적 개혁에 동의한 영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도 우연은 아니다. 카르멜리타 교단 개혁을 주도한 산타 테레사가 유럽 교단에 널리 영향을 미쳤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

12) 같은 책, 11.

13) 같은 책, 154-155

14) 플레처의 *Fair maid of the Inn, The Chances, Rule a Wife and Have a Wife*는 세르반테스의 모험소설 중 *Ilustre Fregona, La Señora Cordelia, El Casamiento Engaño* 스토리에 각각 의존한 작품들이다. 미들턴과 라울리는 세르반테스의 *La Gitanilla* *The Spanish Gypsy*로 각색했다. (Martin Hume, *op. cit.*, 226-227)

이다. 루이스 데 그라나다의 두 저서 『명상Meditaciones』과 『그리스도 삶의 비망록Memorial de la Vida Cristiana』은 1582년 홉킨스 Richard Hopkins에 의해 *On Prayer and Meditations, wherein are contained fourteen devout Meditations for the seven days of the week*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어느 시대 어느 장르를 막론하고 스페인 문학이 영국 문학과 가장 긴밀한 관계 속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것은 황금세기를 풍미한 스페인 국민극일 것이다. 고슨Stephen Gosson은 *Plais Confuted in fire Actions*(1581)에서 영국 극에 미친 라틴, 프랑스,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압도적 영향에 대해 언급했으며, Schack은 *Geschichte der Spanischen Literatur*에서 플레처의 작품 중에서 로페 데 베가 등 스페인 작가들의 희곡에서 플롯을 빌려온 예를 열거하였다.<sup>15)</sup> 당시 스페인 국민극과 동시대의 영국 희곡은 다같이 고전적 전통과 결별하고 근대적 구어체 연극에 접근하고 있었다. 특히 16세기 말과 17세기 초엽 스페인 사회는 국왕에서 하층민에 이르기까지 온통 연극에 취해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강력한 부와 세력을 누렸던 스페인의 국민극 전통은 다른 유럽 국가에 극적 소재의 공급원이 되었다.

군인이며 정치가이며 역사가였던 딜론 경 Sir John Talbot Dillon(1740-1805)의 것으로 추정되는 『스페인의 영국 여행가로부터 온 편지』 *Letters from English traveller in Spain, in 1778, on the origin and progress of poetry in that Kingdom: with occasional reflections on manners and customs, and illustrations of the Romance of Don Quijote. Adorned with portraits of the most eminent poets*는 전문학자의 견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르반테스를 셰익스피어에 견주어 칭찬하는 등 탁월한 식견을 보여주었다. 로페에 대해서는 추종자들이 그의 심미적 안목을 따르지 못했다고 평했는데 하면, 칼데론에 대해서는 그의 기지가 아름다운 표현을 위태롭게 했으며 방종과 반란으로 스페인인들의 정신을 타락시켰다고 했다.<sup>16)</sup>

15) Frey, Albert R., *op. cit.*, 11.

16) Green, Otis H., "Sir Talbot Dullon and His Letters on Spanish Literature(17

셰익스피어도 스페인 극의 스토리에서 많은 소재를 구했다. *The Two Gentlemen of Verona*가 『다이아나』의 인물 펠리스메나 Felismena 이야기에서 소재를 구한 것이라면, *Taming of the Shrew*는 『루카노르 백작』에서 소재를 구한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는 스페인 문학에 등장하는 인물 이름들이나 유사한 인물형이 자주 등장한다. 그러나 스페인 국민극의 영향은 단순히 주제나 소재의 전수와 모방 같은 표피적 관계에서만 파악될 문제가 아니다. 더 나아가 동시대 유럽인들의 세계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블테면 삶을 꿈에 비유한 칼데론의 세계관은 셰익스피어는 물론 유럽 바로크 문학에 현상의 무상성을 보편적 주제로 확산시켰다.

때로 영국과 스페인의 정치적 갈등과 이해관계에 따라 국민적 감정이 교차하는 작품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스페인 무적함대가 영국에 패퇴했을 때 핏제프리 C. Fitzgeffrey는 그의 시 *The Life and Death of Sir Francis Drake*로 자축했고, 로베르 네 베가는 드레이크를 주인공으로 한 당시 *La Dragontea*로 응수하며 엘리자베스 여왕과 드레이크의 승리를 평가절하했다.

민족적 이념 갈등이 보여지는 것은 17세기 작품에서 뿐만은 아니다. 상대방 문학을 비교해보는 스페인과 영국의 비교문학적 관점에도 각기 나름대로의 이데올로기는 배어있다. 이블테면 영국 비교문학자들은 스페인 문학에 관하여 철학적으로 열등한 스페인 문학이 유럽인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한 것은 스페인 민족이 지닌 토속적 유머나 이채로운 소재 같은 독특함이라고 생각하곤 한다. 흄 Martin Hume의 관찰도 유사한 시각을 드러낸다.

공상과 사색, 자기 성찰, 관찰되는 사물들에 대한 명상은 영국인 기질의 천성적 성향이다. 영국인은 인간의 삶의 수레를 돌리는 힘의 원천에 다다르고 싶어한다. 그는 작품을 이해하고 그 행위의 이유를 탐색하고 싶어한다. 스페인인들은 대부분의 반라탄게 민족들처럼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다. 그들은 동작 그 자체를 보고 거기에 참여하고 싶어한다. 말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사물의 표피를 즐기고 싶어한다. 간단히 말해서 스토리를 따라가며 고통당하는 여주인공과 함께 울고, 주인공의 이타적인 용기에 자신을 투영시켜보며, 광대 짓에 웃고 속된 인물들은 욕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sup>17)</sup>

말하자면 영국 쪽에서 본 스페인 문학의 특징은 기껏해야 영국인들의 상식 밖에 있는 진기함에 있었던 것이다. 흠의 비교 시각에는 스페인 문학에 대한 영국 문학의 심리적 우월감이 배어 있다. 비교문학적 시각의 한계는 그 민족주의적 편향성에서 드러난다. 영국의 비평계에서 대체로 스페인 문학이 자국 문학에 끼친 영향을 표피적이거나 비본질적인 것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그것이다. 스페인 문학이 자국 문학에 끼친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낱요 하거나 결정적이거나 구조적일 수 있는 영향을 유럽 문학 전통 내의 상통과 상생의 관점에서 깊이있게 탐색하려는 태도나 의지는 찾아보기 힘들다. 프라이가 셰익스피어의 로베 데 베가 표절론을 반박하며 내리는 결론은 스페인 극에 대한 영국 극의 절대적 우위이다.

스페인 드라마, 특히 로베 데 베가에 의해 씌어진 뒤편은 결점을 지니고 있다. 시간과 공간의 일치가 지켜지지 않았고, 역사적 사실이 각색 목적으로 왜곡되었다. 로베 데 베가는 종종 목동, 범부, 그리고 일자무식 인물들의 입을 통해 그들의 지위에 맞지 않는 표현들을 구사해 자기의 박식함이나 과시하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착오성이나 실책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는 아주 드문 일이다. 대부분 그의 인물들은 매일 거리에서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인물 유형들이다. 그들은 자연스럽다. 로베 데 베가나 그 유파의 인물들과는 달리 완곡어법이 난무하는 세상, 기교적인 모습의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 셰익스피어가 그려냈던 것과 같이 그러한 감상적 유약성, 사랑과 용서와 신의와 덕성은 그 시대의 스페인 문학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렇게 불성실한 극 양식에서 배껴낼 만한 것이 있었던 말인가? 그러한 비현실적인 원형을 모방해 얻을 이익이 있었던 말인가? 결코 아니다!<sup>18)</sup>

17) Hume, Martin, *op. cit.*, 254-255

18) *Op. cit.*, 40-41. 프랑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스몽디 J. Léonard Sismond Sismondi는 *De la littérature du Midi de l'Europe*에서 스페인 희곡과 프랑스 희곡 각각 낭만극과 고전극으로 나누어 구별하면서 스페인 희곡의 경우 꾀진성 *vraisemblance*을 결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스몽디의 판단은 심미적 준거에 근거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프랑스 극 중심의 기준에 따라 스페인 극을 비판하고

쉐빌 R. Schevill도 스페인 문학과 영국문학은 그 근본 정신이 상이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영국의 어떤 작품에서도 스페인 작품들의 소재의 원용이 있었을지언정 스페인 정신의 침투는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sup>19)</sup> 산업과 자본주의 체제의 미발달을 국가적 이념 통일에 의한 중앙권력 확장으로 보완하는 과정에서 급격하게 강화된 교회의 통제 이념이 스페인 희곡의 주제를 경직시켰다면, 셰익스피어의 희곡은 시민계급의 자유주의 정신이 명확한 현실 인식에 근거하여 자기 성찰을 보여줄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의 차이를 언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찌됐든 영국 비평이 스페인 문학과와의 관계에 접근할 때 어떤 경우에도 민족주의적 경향의 주관적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점은 쉽게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 3. 라틴아메리카 문학과 미국문학

미국문학에 있어서 스페인 문학에 대한 최초의 관심들 중의 하나는 먼저 뉴잉글랜드를 중심으로 롱펠로우 Henry Wardworth Longfellow(1807-1882), 레스콧 William H. Prescott(1796-1859) 그리고 『스페인 문학사 History Spanish Literature』을 쓴 티크노 Ticknor 등에게서 찾을 수 있다. 남캐롤라이나에서는 19세기 들어 심스 William Gilmore Simms가 스페인 로망스, 역사, 정복과정의 기록 *cónica* 등에 매료되었으며 돈 카를로스를 소재로 한 연극처럼 그의 픽션과 시의 중요한 소재로 활용했다. 사라센의 스페인 침략과정과 스페인의 저항을 소재로 한 『펠라요 Pelayo』(1838), 『홀리안 백작 count Jun』(1845) 등은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심스의 경우에도 스페인적인 것의 수용 가치를 이색적이라는 데서 찾은 것은 영국 문학자들의 경우와 다를 바

---

프랑스 극을 옹호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종교적 이유에서 깔데론의 극을 혐오했다는 점에서 객관성을 잃고 민족주의적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다. "Sismondi as Crit of Spanish Comedia," *MLN*, 71(1956), 32-37

19) "On the influence of Spanish Literature upon English in the Early 17th *Romantische Forschungen*, 20(1905-1906), 628-633

없었다.

미국 문학의 경우에는 스페인 문학보다 지리적으로 근접한 중남미 문학과 상대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사실 북미와 중남미는 상이한 문화와 사회 전통을 이어받았다. 북미와 중남미에 앵글로 색슨 문명과 스페인 라틴 문화가 각기 다른 기독교 정신을 이식하고 서로 다른 식민 역사를 일구어냈기 때문이다. 헤겔은 북미는 산업과 프로테스탄트주의를 기초로 건설되어 개인의 자유를 숭상한 식민문화였으며, 남미는 군벌과 성직계급이 부를 독점하고 지배하며 작위와 체통의 허영에 빠져있던 정복사회였다고 구별했다.<sup>20)</sup> 그리하여 북미가 종교적 박해를 피해온 메이플라워 호의 진보적 프로테스탄트들에 의해 건설되었다면 중남미는 가톨릭 교회의 정치적 배경 하에서 여전히 봉건적 의식을 소유한 스페인 구교도들에 의해 경영되었다는 사실은 두 대륙이 서로 다른 두 가지 문화적 토양으로 갈라지게 된 배경을 설명해 준다.

그러나 이질적 문화 전통에 못지않게 북미와 중남미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 문명의 식민 이식 과정이라는 공통의 역사를 체험했다. 유럽 문명이 미개한 인디언 문화를 대체하면서 아메리카의 역사는 원주민의 역사가 아니라 유럽인들의 역사로 씌어지기 시작했다. 정복 시대부터 아메리카는 아마존 여인전사 왕국, 금은 보화로 가득찬 시볼라 Cibola의 일곱 도시, 젊음과 영생의 샘, 엘도라도 등 기사소설이나 희랍 로마 신화 또는 마르코폴로 견문록에 나오는 상상 세계의 원천지로 여겨져 유럽인들의 모험심을 자극하였다. 그러한 신화적 전통은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의 고대 신화와 엮이며 남북 아메리카 문학에 신화와 현실이 교호하는 독특한 리얼리즘 양식을 잉태시켰다. 그리하여 역사적 현실과 신화적 상상력의 세계를 넘나드는 가르시아 마르케스 G. García Márquez나 룰포 J. Rulfo의 마술적 사실주의는 과거의 영광과 미래의 불확실성 사이에서 인종적 갈등을 표출하는 포크너 W. Faulkner의 표현주의적 바로크 스타일과 상통하고 있었다.<sup>21)</sup> “컬럼버스

20) Ortega y Gasset, José, “Hegel y America”, *El Espectador*(Madrid: *Revi Occidente*, 1950), 794.

이전의 조각에서부터 식민시대의 성당과 수도원 문서들을 거쳐 현대 최고의 소설에 이르기까지 우리 예술은 언제나 바로크적이었다”<sup>22)</sup>는 까르뻬띠에르 A. Carpentier의 지적은 중남미 문학뿐만 아니라 미국문학 전통에 대해서도 일단의 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국문학과 라틴아메리카 문학은 각기 영국문학과 스페인문학의 오랜 식민 역사를 통해 독자적 색채와 독립적 이념을 담아냈다는 데서도 공통적이며 상호간 역사적 문제의식을 공유하기도 했다. 두 아메리카는 영국과 스페인으로부터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문화적 자주성을 추구하였으며 그것은 낭만주의와 모더니즘 문예사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표출되었다. 그리하여 포크너와 가르시아 마르케스, 톨포 뿐만 아니라 소르 환나 이네스 데 라 크루스 Sor Juana Inez de la Cruz, 트웨인 Twain, 멜빌 Melville, 포우 Poe, 아스투스 Asturias, 보르헤스 Borges, 까르뻬띠에르 Carpentier, 레사마 Lezama 등 한 족적을 남긴 남북 아메리카 작가들이 역사적으로 공유해 온 주요한 문제의식 중의 하나는 유럽으로부터 독립한 그들 아메리카와 국가, 그리고 문화의 정체성 확립이었다.

더 나아가 세계대전을 거치며 초강국으로 등장하면서 미국 문학은 독자적인 틀을 갖추어 가기 시작했고 중남미 문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이르렀다. 20년대 미국 소설을 필두로 헤밍웨이 Hemingway, 포크너 William Faulkner, 도스 파소스 John Dos Pasos에서 예외일 수 없었다. 포크너가 미국 남부의 상처받은 시골 환경을 그렸듯이 톨포나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남미의 저주받은 대지를 그들 소설 배경으로 했다. 또한 폭력과 노예제 시민전쟁

---

21) Pablo Armando Fernandez는 그밖에도, 현실과 신화를 혼합한 포크너와 가르시아 마르케스 그리고 톨포의 작품 세계의 공통점으로 ‘농업경제에 기초한 농장문화, 포크너의 경우, 시민전쟁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작가들의 경우 지속적 독재자들과 식민본국에 대한 지속적 투쟁을 들었다. “Dreams of two Americas”, *Reinventing Americas Comparative Studies of Literature of the United States and Spanish* ((ed.)Chevigny, Bell Gale, and Laguardia, Gari, Cambridge Univ. Press, 1986),  
 22) “Problematicas de la actual novela latinoamericana,” *Tientos y diferencia* Universidad Nacional Autonoma, 1970), 32.

의 업보로 절망과 고독 속을 살아가는 비극적 역사에 맞서 운명을 극복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고자 투쟁하는 인물들을 그린 포크너의 영향은 남미 작가들에게서도 그대로 확인된다.<sup>23)</sup> 라틴 아메리카 작가들이 문학을 통해 그들의 문학적 자의식을 탐색하기 시작한 것은 1940년대에 들어서였다. 보르헤스의 두 작품 『픽션들 *Ficciones*』(1944)과 『알렘 *El Aleph*』(1949), 아르헨티나의 마리찰 Leopoldo Marichal의 작품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아담 *Adan Buenosaires*』(1948), 아스투리아스 Miguel Angel Asturias의 『대통령 각하 *El Senor Presidente*』(1940), 그리고 매직 리얼리즘을 주창한 가르멘티에르의 『이 세상의 왕국 *El Reino de Este Mundo*』(1949) 등에서 보여지듯 중남미 소설은 모더니즘을 수용하면서도 독자적 소설 형식에 중남미 고유의 역사적 문제의식을 구현해나갔다. 가장 유럽화되고 보편주의적인 작가로 꼽혀온 보르헤스조차도 유럽 아방가르드 기법을 수용하면서 유럽문학과 과거 전통을 비판하고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표현양식을 구가한 중남미 문학의 변화의 물결을 대변하고 있었던 것이다.<sup>24)</sup> 이들 소설이 중남미가 세계대전중 상대적으로 자급자족적이고 독립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나타난 소설들이라면, 50년대 이후의 작품들은 중남미의 경제적 예측이 다시 진행된 시대를 반영한다. 푸엔페스 룰포의 *Pedro Páramo* (1955), Alejo Carpentier의 *Los pasos perdidos* (1954), C. Fuentes의 *La región transparente* (1958)은 멕시코 혁명과정의 정치적 부패와 부르주아 사회의 타락을 그려냈다. 자기성찰적인 소설 전통을 지속적으로 계승한 50년대의 소설에 이어 이른바 60-70년대의 붐소설들은 외세에의 예측이 강화되어가는 가운데 중남미 각국의 사회적 질서와 가치에 대한 자기반성적 분석이 시도된 시대였다. 이 무렵의 꼬르타사르 J. Cortazar, 바르가스 요사Vargas Llosa, 가르시아 마르케스, 푸엔페스 등은 바로 전 시대의 미국 작가들인 포크너, 헤밍웨이, 도스파소스 등

23) Gerald Martin, *Journeys through the Labyrinth, Latin American Fiction in the Century*, Verso, New York/London, 1989, 172.

24) MacAdam, Alfred J., *Textual Confrontations. Comparative Readings in Latina Literature*, Univ. of Chicago Press, 1987, pp. 23-24.



에 영향받은 작가들인 동시에 역으로 미국 소설 전통에 영향을 미쳐 신선한 충격으로 변화를 촉진시킨 작가들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이들 봄소설은 미국 문학과 라틴아메리카문학의 영향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금석이 되었다. 스페인 문학에서 영국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 세르반테스, 로페 데 베가, 깔데론, 피카레스크 소설 등 황금세기 문학이었던 것처럼 스페인어권 아메리카 문학에서 미국문학에 주목할만한 영향을 미친 것은 현대소설의 황금세기라고 할 수 있는 60-70년대 봄 소설이었던 것이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보르헤스였다. 그만큼 다문화적 체험을 섭렵한 작가도 드물 것이다. 아르헨티나에서 아르헨티나적 기질을 타고 태어났지만, 세계 문학에서 자양을 섭취한 보르헤스에게는 정신적 고향이란 없다고까지 얘기될 정도였다.<sup>25)</sup> 그의 작품 중에는 중국의 역사와 철학이 해석되는가 하면, 아랍의 진기한 채담과 우화들이 풍부한 상상력으로 재구성된다. 게다가 영국계였던 조모의 영향으로 스페인어만큼 능숙하게 영어를 구사했던 그가 스페인 문학과 아르헨티나 문학에 못지 않게 영문학과 미국 문학에 심취해 있었던 것도 그의 작품들이 토속적이거나 민족적 경계를 넘어 독특하게 보편적 특질을 내포하게 된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때로 엘리엇 T. S. Eliot, 예이츠 Yeats, 조이스 Joyce 등에 대해 비판도 읽을 수 있지만 체스터튼 Chesterton, 스티븐슨 Stevenson, 웰스 Wells, 포우 A. A. Poe, 던 John William Dunn 등에 대한 보르헤스의 관심은 대단한 것이었다.

보르헤스가 네루다 P. Neruda, 빠스 O. Paz와 더불어 수없이 명멸한 중남미 작가들 가운데 중남미 전통의 경계를 넘어 탁월하게 돋보인 예외적 작가들이었다면,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중남미적인 문학 전통에 천착해 가장 중남미적인 소설형식을 창조해낸 작가였다.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보르헤스나 네루다나 빠스처럼 중남미 과거의 환영과 신화에 매료되었지만, 보르헤스가 아르헨티나의 과거 환영들을 불러내 유희를 즐기고 네루다가 안테스 산맥을 관통하며 고뇌하는 선조들의 혼을 찾아냈으며 빠스가 고대 멕시코의 제의와 제

25) André Mourois, *Labyrinth*, New Directions, New York, 1964. ix.

물들을 부활시켰다면,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그 환영들과 더불어 살며 초월적 비전을 드러내 보여주었던 것이다.<sup>26)</sup> 또한, 네루다의 참여시와 빠스의 동서양을 관통하는 형이상학적 시가 미국의 이방문학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켰다면,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보르헤스와 더불어 포스트모더니즘의 붐을 타면서 중남미의 국지적 경계를 넘어 포스트모던 사조의 비조로 각광받기에 이르렀다. 여기서도 라틴아메리카의 토양에서 썩어져 라틴아메리카 역사와 사람들의 진실을 얘기하는 라틴아메리카 작가들이 미국의 상대주의적 다원주의 이데올로기인 포스트모더니즘을 대변하는 것은 미국의 이데올로기를 위해 라틴아메리카의 진실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닌가고 반문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 4. 결 론

지금까지 스페인 문학과 영미 문학 사이의 비교문학 연구는 주로 실증적이고 역사적인 영향 관계에 대한 고찰에 집중되어왔다. 작품들의 뿌리와 기원은 물론 상호 영향관계를 탐색하고, 전통의 유형을 확인하고, 문학 정전을 확정하고, 민족의식을 밝혀내는 데 치중해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생물학적 진화에서뿐만 아니라 문화 영역에서도 자생적인 동종교배를 통해서만 성장의 한계가 있으며, 종의 갈래가 다르면 다를수록 그 교배는 창조적 종을 낳게 됨을 보여주었다. 순수하게 토속적인 스페인 문학을 지향했던 로베 데 베가와 케베도의 문학이 지니는 한계에 비하면 셰익스피어와 스페인 문학, 보르헤스와 미국 문학의 관계는 이종교배가 가져온 창조적 결과를 보여주는 훌륭한 예일 것이다. 가장 토속적인 주제로 가장 라틴아메리카적인 세계를 대변한다고 하는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포크너를 스승으로 추앙했던 사실도 상기시켜 볼 일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확인되는 것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어느 쪽이 비교의 주체인가에 따라 일방의 편향된 민족주의 정서와 이데올로기가 작용했다는 사실이다. 다시말해 스페인 문학과 영국문학의 관계이든 미국

26) Peter Eale, (ed.) García Márquez. *El escritor y la Crítica*, Taurus, Madrid, 1

문학과 중남미 문학의 관계이든 비교문학에서 연구자의 시각은 객관적이기는 커녕 불가피하게 이데올로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이제 비교문학 연구는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이미 우리가 데카르트 이래 새로운 사유의 자유 시대를 살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성만큼 감성이, 합리성만큼 창조성이 강조되고 사유의 주체성보다 주체의 다중성과 파편성이 강조되며, 저자의 죽음과 독자의 의미 생산 참여가 강조되는 시대이기도 하다. 이제 유사성이나 역사적 기원과 수용 관계를 연구하는 것만으로 비교문학 연구의 소임을 다하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영국문학과 스페인 문학, 미국 문학과 중남미 문학은 불가피하게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수 밖에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 문제는 그러한 영향과 수용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이질적인 것들이 만나 창조적 변용이 가능해지고, 서로 다른 문학적 모티프가 어떻게 교호하며 문화의 영역을 확장해가는가 하는 역동적 시각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sup>27)</sup>

또 다른 한편으로 글로벌화의 새로운 세계 조류에서 비교문학 연구도 예외일 수 없게 되었다. 하나의 지구촌을 향한 역사적 변화가 그동안 단척있던 국지적이고 지방적인 세계들과 분파적 문화들을 지속적으로 교류시키고 통합시켜가고 있으며, 거기에서 비롯된 문화다원주의는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차별화 장벽을 넘어 통합적 문화 질서로 나아가고 있다. 비교문학 연구도 문화연구의 패러다임 안에서 새롭게 자리매김 되어야 하는 것이다. 텍스트를 넘어 문학외적 맥락에까지 해석 영역을 확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또한 문학의 지역적 공간적 비교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단절되고 단척진 문학 사이의 비교와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인접 학문과의 학제적 접

27) 캐나다에서 열린 영-스페인 비교문학 학회 논문집 *Parallel Lives. Spanish English National Dramas 1580-1680*(Ed. Louise and Peter Forthergill-Payne, As University Press, London, Toronto, 1991)은 영국과 스페인 국민극의 Corral/Playhouse에서 Lope de Vega, Calderón de la Barca, Tirso de M Shakespeare, Webster, Thomas Kyd 등의 작품을 비교하면서 극형식의 차이, 바로크와 근대성, 그리고 정치적 관계와 이데올로기적 배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교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